**긍휼의 삶 (1)**

<빌립보서 2장 1-8절>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응답이 순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부르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몸소 걸어가신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간에 걸쳐 주목하기 원하는 주제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국어사전에서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mpassion은 라틴어 ‘파티’(pati)와 ‘쿰’(cum)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굳이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에서 멀어지기 위해 온갖 방법과 기술을 동원합니다.

긍휼은 우리 인생에서 중심되는 관심사도 아니고, 우선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경쟁적인 세상에 긍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긍휼을 그 경쟁에서 상처입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긍휼은 그 이상의 뜻을 내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눅6:36)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때를 맞았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위안이 됩니까?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충고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있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내가 널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과, 절대로 너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줄 때,

그 고난의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견딜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또 유용성을 따지는 시대에, 그렇게 누군가와 그저 함께있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상대방과 동일하게 상처받기 쉬운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계시다 함이라” (마1:23).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자들이 고침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런 치유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깊은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셨을 때,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 귀머거리들이 사방에서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을 때,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천 명이 지치고 배고픈 것을 보셨을 때,

그리고 외아들을 장사지내고 있는 나인성의 한 과부를 보셨을 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떠시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이 때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헬라어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몸의 내장이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거나 어떤 대단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로 그분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특권적인 위치, 즉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편할 수 있는 위치를 포기하시고,

이처럼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를 무조건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거부당하고 실패한 형태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범죄자로 낙인찍혀 십자가 고문과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추락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무조건적이며 제한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 머물면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그대로 서서 낮은 곳에 있는 좀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쟁에 실패한 이들에게 그저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즉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잡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 고통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갖 종류의 경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된 동기는 경쟁심이지 긍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차이점들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합니다.

이에 반해 긍휼은 서로를 나누는 이런 줄긋기를 포기하고,

의식적으로 나를 남과 똑같은 위치에 두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나보다 힘들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과 말입니다.

긍휼에의 부르심이 그렇게도 깊은 두려움과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3:17)

예수님의 걸음을 십자가에로까지 이끌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일4:18)

두려움을 내어쫓는 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귀와 마음을 온전히 여셨고, 그분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5:17)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경쟁을 통해 긁어모을 수 있는 것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으로 평가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치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이 새로운 정체성과 자존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두려움 없이, 또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 고난과 비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고통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가장 긍휼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이웃의 고통에 대한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거기에 긍휼로 반응하는 정도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불편한 정보를 대했을 때, 나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보다는 분노가, 동정심보다는 짜증이, 긍휼보다는 화가 치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짜피 그것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날 보고 뭘 어쩌란 말이야!”

동료 인간의 고통 앞에 너무도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이처럼 우리는 무감각과 분노로 자신을 방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통을 모두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누추하고 비참한 곳에 그의 자리를 펴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길로 불러낼 때에만, 우리는 순종으로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뜻을 같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음과 같이 긍휼의 삶을 사십시오.

자신의 방식만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럴 듯한 말로 자기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제쳐 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만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다른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본성상 우리는 자기 방식만 앞세우거나, 자기 이익만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반면, 자기를 제쳐 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삶,

그리고 자신을 잊을 정도로 다른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은 고된 작업입니다.

긍휼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긍휼은 가난한 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긍휼은 약한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압제받는 자들이 정의를 위해 투쟁할 때 거기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긍휼은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고 또한 지금도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그 긍휼의 길이 그 너머의 고통과 눈물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있음을 아는 우리가 아니라면,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긍휼의 삶을 향한 이 주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품고 사신 긍휼의 마음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통 중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로 다가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도 이 땅의 많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